

2024년
5월 22일 水
(May-2024)

Monthly Yangji



• Edited / 입학상담실 (Rhee) • Published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16 양지메가스터디기숙학원 / ☎ (031)326-5000

입시 소식



합격 스토리

김경빈(양지13기, 연세대 미래의대, 한림대 의대 합격)

1. 양지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메가스터디학원 중 양지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수많은 재수학원 중 양지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학원을 알아보는 기준 4가지에 모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시간표' 입니다. 일반 재수학원과 비교했을 때 기숙학원은 공부시간 확보에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숙학원들 중 양지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은 시간표가 훨씬 촘촘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원한다면 심야자습을 신청해 더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자기주도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한 저에게 잘 맞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는 '장학제도' 입니다. 재수가 힘든 이유는 장거리달리라는 점 때문입니다. 메가스터디는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많은 N수생들이 학원비를 혜택받으며 다닐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매월 학급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저에게 하나의 동기부여로 작용했습니다.

세번째는 '시설' 입니다. 1년동안 기숙하며 공부하는 시설이 밝고 깨끗하다면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몸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축 양지메가스터디는 저에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번째는 '질의응답 시스템' 입니다. 질의응답은 제가 재수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메가스터디의 학습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 해결했었는데, 메가스터디 학원에 강사선생님들 또는 조교선생님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질의응답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 저의 학습스타일과 잘 맞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 양지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가장 크게 도움 받은 부분은?

메가스터디의 '자율학습제'와 수많은 '실전모의고사' 들 덕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실전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재수가 시간이 많아보지만, 6모와 9모를 치를수록 점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가스터디의 '자율학습제' 제도는 효율적인 시간분배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는 국어에서 문학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수업뿐 아니라 선택수업으로 많은 문학작품을 접하며, 문학에 할애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개념을 공부하고, 작품 해석방법을 배우며, 다양한 문학작품에 직접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공부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메꿀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실전모의고사도 중요합니다. 현역 때 관리가 안됐던 부분이 시간관리였습니다. 메가스터디학원에서 메대프, 이감, 수, 쉼 등등의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과목과 체감 난이도마다 실전에서 어떻게 풀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소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일일수학 30제였습니다. 경쟁하며 공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공부에 긴장감을 주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일일 수학 30제를 꾸준히 쓰며 같은

반 친구들의 공부량과 비교하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제로 삼았습니다.

3. 본인만의 공부 노하우는?

(1) 월/주/일 단위로 계획 세우기
3-5월달에는 수업 복습을 위주로 하며 기본적인 실력이 쌓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6모가 다가오면서부터 월마다 보는 모의고사를 토대로 어떤 과목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4주동안 각 과목당 보완할 부분, 보완하기 위해 볼 교재, 공부할 양 등을 정하고, 그것을 주단위로 나눈 후, 일 단위로 다시 나누는 방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한 과목에 치우쳐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스톱워치 적극 사용하기
저는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어떤 공부를 몇 시간동안 했는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면 공부 느슨해질 때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어서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킬러문제를 풀다보면 3-4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략 몇분에 한문제를 푸는지 알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질의응답을 적극 사용하기
저는 문학공부에 있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지의 판단근거를 작품에서 찾기 어렵거나, 찾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 먼저 스스로 고민하며 논리적으로 근거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질문을 통해 선생님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만약 다르다면 어디서 잘못 생각했는지를 확인하고 교정하고자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문학 선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잡혔고, 판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국어-[문학]

언매를 선택했던 저는 문학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문학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문학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어 공부’와 ‘기출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념어 공부를 위해 문학 개념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출 선지에서 자주 나오는 ‘인식’, ‘사물과 인물’, ‘비판’, ‘대상’ 등 기본적인 단어 뜻을 이해 및 정리하고, ‘의인화’, ‘활유법’, ‘객관적 상관물’, ‘대화와 독백’ 등 자주 나오는 문학 개념들도 정리했습니다. 헛갈릴 때마다 노트를 읽으며 기억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개념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개념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경험치를 쌓는 것은 기출분석을 통해 학습합니다. 기출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원이 어느정도까지 이 개념으로 생각하는지 경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엄밀한 문제이기에 정확하게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출을 통해 개념을 적용하고 선지를 끊어서 판단하는 연습을 반복하여 판단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 작가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작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작가의 경향성과 대표작 등 큰 흐름만 기억해도 그 작가의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윤동주 시인- 자아성찰, 반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의 키워드를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흐름과 대표작가를 연결지어 기억하는 것도 작품을 이해하고 배경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루틴 만들기]
국어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저는 앞장부터 순서대로 푸는 방법을 사용했고, 독서 35M, 문학 20-25M, 언매 15M, 마킹+가채점 5M의 큰 틀을 만들어 갔

습니다. 실모의 난이도에 따라 몇분씩 가감하기는 했지만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루틴을 만들면 낯선 시험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대략적인 문제풀이 시간을 알면 시험의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고, 뒤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모를 볼 때마다 맨 앞장에 각 파트당 몇 분이 걸렸는지 기록했고, 변수가 생겼다면 그 이유를 꼭 적어 다음 시험에 당황하지 않는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모에서 틀린 문제 위에 틀린 이유, 부족한 개념, 다음에 주의할 사항을 기록하여 모의고사를 보기 전마다 한번씩 훑어보며 읽어주었습니다.

수학-[시기별 수학 공부법]
수학은 시기별로 ‘기출->N제->실모’의 흐름으로 공부했습니다. 6모 전에는 수1, 수2 기출문제를 풀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수2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이나 수업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수1은 기출 2번, 수2는 기출 4번 정도 풀었고, 미적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수능 직전까지 기출을 5번정도 풀었습니다.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출을 풀 때 풀이의 근거를 남두고 체화할 때까지 풀었습니다. 6모 이후로 수1, 수2는 드릴, 실모를 풀며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수1은 기출보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게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학원 내 프린트, 시중 교재 등을 적극 이용했습니다. 미적은 N제를 풀기엔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쉼, 수 등의 적절한 난도의 실모를 이용해 새로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9모 이후로 EBS실모, 쉼, 수, 메대프, 킬캠 등 다양한 난이도의 시험을 보면서 시간배분과 풀이 순서를 확립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1, 수2 - 50분, 미적- 36분으로 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학노트 활용법]
미적을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도

움이 되었던 것은 ‘수학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미적 기출문제를 처음 풀 때 당연히 어렵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답지를 보고 이해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모르는 문제만 해설강의를 이용했습니다. 노트를 반 접어 번호와 문제를 적고 파란색 펜으로 왜 이렇게 접근했는지 이유를 적었습니다. 빨간 펜으로는 실수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노트를 정리한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색깔 펜으로 정리한 것을 여러 번 보면서 왜 이렇게 접근했는지 풀이의 흐름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기출이 익숙해지고, 어떻게 푸는지 논리가 정립되니 N제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저는 현역과 재수 초기에 모두 영어가 80점 후반으로 성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제자리인 성적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6모이후로 가장 열심히 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80점 후반에서 90점 후반으로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노하우는 ‘꾸준함’입니다. 영어공부의 큰 틀은 ‘단어, 독해, 어법’이며 대략 3:6:2 비율로 매일 공부했습니다. 먼저 단어암기를 위해 점심, 저녁 시간, 자투리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날, 저번주에 외웠던 것 중 기억이 안나는 것만 다시 외우는 방법으로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후반기로 갈수록 단어 암기에 시간을 쏟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6월 단어를 많이 외워두되 9월 모평 이후에도 단어장을 항상 지니고 꾸준히 외워야 합니다. 독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읽고 해석하며 어느 부분에서 해석의 오류가 생기는지 찾았습니다. 저의 경우 동사의 수동, 시제 등을 정교하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의식하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끊어 읽으며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9모 이후로는 실모를 많이 풀면서 눈으로 문장을 읽고 바로 해석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법은 수능에서 나오는 것이 정

해져있습니다. 분사구문, 동사의 때, 문장구조 등등 자주 나오는 것들을 기출을 통해 다지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문제의 근거 찾기]

사실 시간관리는 어휘력과 독해력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단축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 문제의 근거에 밑줄 긋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답이 맞았는지 불안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도 확신이 들지 않아 다음 문제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많았고, 항상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에서 확실한 근거를 찾고 과감히 넘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만약 헛갈린다면 가장 답일 것 같은 선지에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었습니다.

6모 이후로 많은 실모를 풀며 매일 2-3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수록 독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졌고, 이후에는 10-15분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4. 끝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진심을 다해라’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하며 한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적분이 싫었습니다. 긴 풀이와 29,30 등의 킬러문제가 주는 부담감은 미적을 좋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모를 보고 미적분에서 희망을 보았고, 적절한 난도의 문제는 제가 미적을 ‘할만하다’라고 생각하게 했으며, ‘진심’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의평가 이후 실전모의고사, 기출, N제 등을 풀며 미적분을 진심으로 풀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9모볼때쯤 미적이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기출에서 봤던 문제고,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진심’이 가진 힘을 느꼈습니다. ‘하기 싫어도 1

년만 진심으로 수학에 미쳐보자’라는 마음은 결국 미적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며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면에서 진심을 다하는 태도는 제가 ‘1년을 정말 충실히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 포커스 시리즈 |

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오승걸)은 **2024.6.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주요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2024.6.4.(화)~6.7.(금)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이번 모의평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4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3. **접수 기간**은 2024.4.1.(월)~4.12.(금)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5.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6.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대학

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및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7.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19.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8. **개인별성적통지표**는 2024.7.2.(화)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② 2024 수능 국어만점자의 학습 핵심 3가지와 수능 경험

핵심 1. 연계

수능장에서 내가 아는 지문이라는 안도감과 시간 단축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EBS가 친절하게 시험 범위까지 알려주는데 등한시하지 마세요. 수특 수완 문학, 독서 모두 제대로 학습하시면 수능 날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핵심 2. 기출

기출은 본인이 평가원과 합을 맞춰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출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 평가원이 파는 함정 선지. 평가원이 하는 지문 구성 등을 모두 공부하시고 노트에 정리하세요. 막판엔 사설 주 4~5회씩 풀며 사고과정 다 망치지 마시고 기출 꾸준히 마지막까지 학습하며 평가원에 사고 과정을 맞춰주세요.

핵심 3. 자기에 대한 믿음

수능 날에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선택과목이 상상을 초월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문학에평소보다 10분을 더 쓸 수도 있고, 독서 한 지문이 아예 막혀버릴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10분 더 썼으면 남들은 20분 더 썼어.’, ‘아 지금 막히네. 내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다시 보면 무조건 풀린다. 우선 넘기자.’ 라고 훌훌 털어

내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근간은 본인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푸실 때 지금까지의 공부량과 관계없이 '내가 전국 수석이다'라는 마음으로 푸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수능 날에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실력 제대로 발휘하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날 경험

2024 수능 때, (가)(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연속으로 2문제

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문제가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지문의 남은 문제를 풀어내고 미련 없이 문학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지문들을 다 푼 뒤에 다시 해당 지문으로 푸는데 다시 막혔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한 뒤 침착하게 문제가 다시 문제를 보니 순간 사고가 맞춰지며 답이 보였습니다. 그 문제가 풀리니 뒤에 막혔던 문제도 바로 풀리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했

냐고 해도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 순간 정확한 사고 과정을 통해 답이 보였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수도 없이 했던 '막힐 때 과감하게 넘기고 나중에 침착하게 돌아오는' 연습의 성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③ 2025 의대 논술 전형 안내 (추후 선발인원 조정 가능)

대학	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기타
		논술	학생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기준	탐구 반영	
			교과	비교과		확통	미/기		사회	과학			
가톨릭	19	80	20	-	○	-	○	○	-	○	3합4	2과목평균 (절사)	한국사4
경북대	7	70	30	-	○	-	○	○	-	○	3합4 과학포함	2과목평균 (반올림)	-
경희대	15	100	-	-	○	○	○	○	○	○	3합4	2과목평균	한국사5
부산대	15	70	30	-	○	-	○	○	-	○	3합4 수학포함	2과목평균	지역인재/ 한국사4
성균관	5	100	-	-	○	○	○	○	○	○	3합4	2과목평균	-
아주대	10	80	20	-	○	○	○	○	○	○	4합6	2과목평균	-
연세대 (미래)	15	100	-	-	○	-	○	2등급	-	○	1등급3개 (영어제외)	별도반영	한국사4
인하대	5	70	30	-	○	○	○	○	○	○	1등급3개	2과목평균	-
중앙대	18	70	20	10	○	○	○	○	○	○	4합5	2과목평균	한국사4

④ 우리가 원하는 합격증 미리보기

<p>합격통지서</p> <p>2014년 12월 10일</p> <p>서울대학교 총장</p>	<p>합격확인서</p> <p>2024년 4월 19일</p> <p>연세대학교 입학처장</p>	<p>입학허가통지서</p> <p>2017년 1월 26일</p> <p>고려대학교 총장</p>
<p>합격통지서</p> <p>2014년 12월 10일</p> <p>성균관대학교 총장</p>	<p>합격통지서</p> <p>2024년 4월 19일</p> <p>성균관대학교 총장</p>	<p>합격통지서</p> <p>2014년 12월 10일</p> <p>한양대학교 총장</p>
<p>합격통지서</p> <p>2014년 12월 10일</p> <p>연세대학교 총장</p>	<p>합격증</p> <p>2024년 4월 19일</p> <p>중앙대학교 총장</p>	<p>합격증</p> <p>2014년 12월 10일</p> <p>경희대학교 총장</p>

□ 학원 소식

1. 특수대 원서접수 안내

- 경찰대 일반전형 원서접수 기간: 5월20일(월)~5월30일(금)
- 경찰대 특별전형(농어촌/한마음 무궁화) 원서접수 기간: 5월3일(금)~5월13일(월)
- 사관학교 원서 접수 기간: 6월 14일(금)~6월24일(월)

2. 학부모 초청 방문상담

- 5월4일(토)~5월5일(일)

YANGJI MEGASTUDY

YOUTUBE

선생님 고맙습니다

연아바 사랑합니다

오래도록 지 곁에 있어주세요.